

농촌지역의 특성 분석 및 유형화*
- 충청남도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

김정연** · 김은순*** · 오명택****

Characteristic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Rural Areas: Based
on the Eup and Myon Areas of Chungcheongnam-do

Kim, Jeong-Youn · Gim, Uhn-Soon · Oh, Myung-Taek

Senior Research Fellow,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er,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ural areas and to classify regional types by applying the multi-variate techniques of factor and cluster analyses, with 171 Eup·Myon level data of Chungcheongnam-do in 2010. During the process of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rural areas, the differences in location, socio-demographic factors, geo-politics, urbanizing and industrializing patterns in rural areas have been driving or accelerating differentiation of rural areas. Based on the factor analysis, 21 factors of Eup-Myon areas are categorized five principal characteristics as follows: municipal city characteristics, typical paddy farming characteristics, urbanizing rural characteristics, aged farming characteristics, and industrializing ru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luster analysis, 171 Eup·Myon areas of Chungcheongnam-do are classified as 6 different regional types as follows; rural service center, aging rural area, urbanizing rural area, paddy farming area, transitional rural area, and manufacturing industry area. It revealed different regional types show significantly different characteristics, which hints rural areas have been experiencing diverse differentiation process depending on regional types.

Key Words: 농촌지역(rural area), 특성(characteristics), 지역유형(regional type), 지역유형화(regional classification), 분화(differentiation),

* 이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의 2013년 기본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수석연구위원(주저자, jykim@cdi.re.kr)

***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교신저자, ugim@cnu.ac.kr)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원(tohin@cdi.re.kr)

1. 서론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비교적 동질적이었던 농촌지역이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다양하게 분화(分化)해 왔고, 이러한 분화과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공간특성 또한 차별적으로 변화해 왔다. 즉, 농촌지역의 대도시·국가간선교통망과의 지리적 근접성 또는 접근성, 자연지리적 특성, 지역농업 구조와 농가 영농형태,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 문화적 특성에 따라 농촌지역 변동의 방향과 속도가 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송두범·오남현, 2001, p.108).

이와 같이 다양화되고 있는 농촌지역 변화의 양태, 방향, 메카니즘을 규명하거나 농촌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농업·농촌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지역을 분류 또는 유형화 하고, 그 특성과 변화동인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그 대부분은 농촌지역의 특성분석 또는 유형구분에 관한 연구들로서 농촌지역의 분화 현상에 대해 다양하게 분석·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단일 연도에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유형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시·군을 분석단위로 함으로써 시·군청소재지, 읍지역과 같이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의 지표값도 섞이게 되어 분석지표가 왜곡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구분된 농촌지역 유형 간 특성 차이나 변화를 파악하는데 소홀한 면이 있다(최양부 외, 1985; 이정환, 1987; 신호철 외, 1992; 엄수원, 1997; 송두범·오남현, 2001; 윤상수·주호길, 2005; 김미영, 2007).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충청남도 읍·면지역을 사례로 농촌지역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농촌지역 유형구분과 관련된 연구동향과 연구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농촌지역 유형화에 관한 선행연구의 내용과 분석방법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지역 유형구분과 결과해석으로서, 인자분석에 의해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유형구분을 한 후 지역유형별 특성을 살펴본다. 나아가서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각 유형 간의 특성 차이와 각 유형별 변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을 유형화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국토공간상에서 다양하게 관찰되는 공간적 현상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 틀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유형별로 적합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성주인·송미령, 2003, p.2). 특히, 지방 주도의 농촌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읍·면 단위 및 그 이하 공간 단위에 대한 적절한 유형 구분과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분석의 틀

2.1. 선행연구 고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유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 중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유형 구분 사례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유형 구분에 관한 연구는 1930년대부터 시작되어 초기에는 농업지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점차 농업경제학, 농업정책학, 농학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농촌지역을 인간의 삶을 담는 종합적 실체로서의 정주생활권 또는 지역사회로 인식하고 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낙후지역, 조건불리지역 정책대상으로서 농촌지역 정책의 차별적 적용을 위한 농촌지역의 유형구분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엄수원, 1997, pp.51-63; 성주인·송미령, 2003, pp.2-5; 이원호·안영진, 2011).

농촌지역의 유형 구분을 위한 공간 단위는 시·군 단위, 읍·면 단위, 마을 단위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공간 단위의 설정은 크게 연구목적과 기초자료 확보 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국 차원에서는 시·군 단위로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읍·면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대상 범위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나 특정 사례로 줄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성주인·송미령, 2003, p.5). 이때 농촌지역 유형 구분을 위해 시·군을 분석 단위로 하는 경우, 시·군 지역을 동일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공간 단위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시청소재지(동지역)와 군청소재지(읍지역)는 시·군지역 내에서 인구비중이 높고, 경제·사회의 제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반적인 농촌지역과는 크게 다르다. 그런 만큼 시·군지역을 분석 단위로 하게 되면 그 하위의 도시 또는 도시적 속성이 강한 지역과 농촌적 속성이 강한 지역이 하나의 단위로 묶임으로써 유형 구분 결과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는 문제를 갖게 될 수 있다(이상학, 1995, p.130).

농촌지역 유형 구분을 위한 분석기법은 초기에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 지표를 등급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점차 주성분분석, 인자분석, 군집분석 등의 다변량기법을 주로 사용하거나 등급화 기법을 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주성분분석 또는 인자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얻은 주성분점수 또는 인자점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에 의해 유형화하는 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유형구분에 사용되는 일차변수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초자료의 구득 가능성에 의해 많은 제약이 있게 된다. 농촌지역 유형

구분을 위하여 시·군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우는 생산되는 공식통계의 종류가 많아서 연구목적에 맞는 일차변수의 구득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읍·면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생산되는 공식통계의 종류와 사용 가능한 자료의 수가 매우 적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마을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전산화된 지리정보나 연구자의 조사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효과적인 농촌지역 유형구분을 위해서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다양하게 생산되어야 하고, 연구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결합되어야 한다.

2.2. 분석의 틀

이 연구에서는 읍·면을 분석단위로 한다. 읍·면 단위는 시·군 단위에 비해 공간범역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동질성이 확보될 수 있고, 자료수집이 비교적 용이하며, 지역농업계획 또는 농촌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 단위이기 때문이다(이정환 외, 1990, pp.158-159; 송두범·오남현, 2001, p.110). 구체적으로 2010년 기준 충청남도 16개 시·군¹⁾의 동·읍·면 중에서 확연한 도시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동부를 제외한 171개 읍·면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지표들은 총 21개이며, 인구·사회 지표로서 인구밀도, 인구 증감률, 노령 인구비율, 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 증감률 등을 사용하였고, 산업·경제 지표로서 도소매업체수, 숙박 및 음식점업체수, 제조업체수, 농가구울, 전업농가구울, 제조업종사자 비율, 농가구당 경지면적 등을 사용하였고, 토지이용 관련 지표로서 도시적 토지이용률, 농업적 토지이용률, 임야율, 경지율, 경지정리율, 농가구당 경지면적 등을 사용하였으며, 주거환경 관련 지표로서 신규주택비율, 노후주택비율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인자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인자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앞에서 분석된 지역특성을 기초로 지역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과정을 보면, 먼저 2010년을 기준으로 분석 대상지역(171개 읍·면)과 분석지표(21개) 간에 자료행렬을 작성하였다. 둘째, 인자분석 결과로 얻어진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의 공통인자를 추출하고 인자부하행렬을 작성하였다. 인자간의 구분을 뚜렷이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행하고, 회전 후에 나타나는 변동설명량, 입력변수와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인자부하량(factor loading), 공통성(communality), 인자점수(factor score) 등을 설명에 사용하였다. 셋째, 각 인자점수를 입력 변수로 한 K-means 군집분석에 의해 지역유형구분을 시도하였다.

3.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구조적 특성 분석

충청남도의 171개 읍·면을 대상으로 21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공통인자 5개가 선정되었다. <표 1>에서 5개 공통인자의 누적기여율은 77.7%로서 일차변수 21개에 관한 정보의 77.7%가 이 5개의 공통인자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표 1> 공통인자의 고유치 및 기여율

인자	고유값	개별 기여율	누적 기여율
제1인자	6.956	19.6	19.6
제2인자	3.540	16.2	35.8
제3인자	2.599	14.6	50.4
제4인자	2.123	14.1	64.5
제5인자	1.100	13.2	77.7

<표 2>의 인자부하량은 각 인자와 21개 일차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각 공통인자는 모든 일차변수와 관련성이 있고, 그 중 소수의 일차변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일차변수에 의해 각 공통인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강혜정, 2006, p.34). 추출된 공통인자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각 변수의 공통성(communality)은 0.553~0.888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인자의 인자부하량이 ± 0.5 이상인 일차변수를 중심으로 인자의 특성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1인자의 인자부하량은 도소매업체수(0.856), 인구밀도(0.796), 도시적 토지이용률(0.781), 숙박 및 음식업체수(0.741), 제조업체수(0.682) 등의 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공통인자는 도시적 정주인구·산업·토지이용 성격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로서, '농촌중심지 또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제2인자의 인자부하량은 임야율(-0.909), 경지정리율(0.796), 경지율(0.760), 농가구당 경지면적(0.668) 등의 변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농업적 토지이용률이 높고 경지기반도 잘 정비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의 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평야답작지대 농촌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라고 할 수 있다.

〈표 2〉 인자부하량

변 수	제1인자	제2인자	제3인자	제4인자	제5인자	공통성
도소매업체수	0.856	-0.002	0.096	-0.249	-0.190	0.840
인구밀도	0.796	0.043	0.338	-0.163	-0.050	0.779
도시적 토지이용률	0.781	0.255	0.088	-0.218	0.320	0.832
숙박 및 음식점업체수	0.741	-0.035	0.193	-0.414	-0.168	0.787
제조업체수	0.682	0.008	0.009	-0.245	0.401	0.686
농업적 토지이용률	0.124	0.913	-0.073	-0.066	0.118	0.873
임야율	-0.271	-0.909	0.060	0.130	-0.141	0.939
경지정리율	-0.159	0.796	-0.075	0.002	-0.065	0.668
경지율	0.488	0.760	0.064	0.138	-0.058	0.842
농가구당 경지면적	-0.254	0.668	0.125	0.237	-0.071	0.588
인구 증감률	0.179	-0.047	0.885	-0.161	-0.040	0.846
노령화지수 증감률	-0.091	-0.063	-0.863	0.085	-0.100	0.774
신규주택비율	0.110	-0.050	0.839	-0.103	0.045	0.732
노후주택비율	-0.185	0.054	-0.559	0.438	-0.109	0.553
전업농가구율	-0.096	0.060	-0.034	0.794	0.034	0.646
노령인구비율	-0.431	0.017	-0.310	0.749	-0.212	0.888
노령화지수	-0.381	-0.027	-0.242	0.733	-0.197	0.780
농가구율	-0.482	0.000	-0.266	0.690	-0.098	0.789
제조업종사자 비율	-0.083	0.073	0.079	0.071	0.899	0.832
사업체당 종사자수	-0.035	0.013	0.251	-0.111	0.874	0.840
천명당 종사자수	0.173	-0.041	-0.154	-0.186	0.845	0.804

제3인자의 인자부하량은 인구증감률(0.885), 노령화지수 증감률(-0.863), 신규주택비율(0.839), 노후주택비율(-0.559)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젊은층 중심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면서 신규주택의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화 진행 농촌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제4인자의 인자부하량은 전업농가구율(0.794), 노령인구비율(0.749), 노령화지수(0.733), 농가구율(0.690)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전업농 중심의 농업지역으로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고령인구 중심의 전업적 농업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라고 할 수 있다.

제5인자의 인자부하량은 제조업종사자 비율(0.899), 사업체당 종사자수(0.874), 천명당 종사자수(0.845)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대규모 제조업체가 집적하고 제조업종사자의 비율도 높은 ‘산업화진행 농촌지역 또는 제조업집적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합지표라

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특성은 주로 읍급도시와 충남 북부의 면지역으로 이루어진 ‘농촌중심지 또는 도시지역’과, 금강유역 및 내포평야 중심의 ‘평야답작농업지대’, 아산시와 당진군 등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진행 농촌지역’,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농촌 특성을 나타내는 ‘고령인구 중심의 전업적 농업지역’, 천안시와 아산시 등의 수도권 연접지역과 연기군과 금산군의 고속국도 연접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산업화 진행 농촌지역 또는 제조업집적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유형 및 특성

4.1.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유형구분

인자분석에 의해 구한 충청남도의 171개 읍·면지역별 인자점수를 이용하여 농촌지역의 유형화를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충청남도의 농촌지역을 몇 개로 군집화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군집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보 손실량(loss of detail)이 급격히 증대하는 급변점 즉, 거리 계수 값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곳²⁾에서 대체로 결정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비계층적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6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다.

6개 유형별 평균 인자점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난다.³⁾ 제1인자는 제1유형 군집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2인자는 제2유형과 제4유형 군집형성에, 제3인자는 제3유형 군집형성에, 제4인자는 제2유형, 제3유형, 제5유형의 군집형성에, 제5인자는 제1유형, 제3유형, 제5유형, 제6유형의 군집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1유형에는 7개 읍, 제2유형에는 68개 읍·면, 제3유형에는 6개 읍·면, 제4유형에는 42개 읍·면, 제5유형에는 30개 읍·면, 제6유형에는 18개 읍·면이 포함된다.

제1유형에 큰 영향을 미친 제1인자는 도소매업체수가 많고, 인구밀도와 도시적 토지이용률이 높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체수와 제조업체수도 많은 농촌중심지 또는 농촌도시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유형에는 과거로부터 농촌중심지 역할을 수행해온 금산읍, 조치원읍, 당진읍, 예산읍, 홍성읍, 강경읍 등 7개의 읍지역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논산시의 강경읍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군청소재지 읍이며,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등의 시청소재지들과 더불어 해당 시·군의 수위중심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지역들이다.

제2유형에 큰 영향을 미친 제4인자와 제2인자는 각각 고령화농업지역과 비평야지역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유형에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천안시 남부 광덕면, 공주시와 청양군의 읍·면, 부여군과 서천군의 북부 읍·면이 포함되고, 서산시, 당진군, 홍성군, 예산군, 금산군의 구릉성 산지지역에 위치한 읍·면지역이 주로 포함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제조업 입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서 지형적 불리성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업기반 정비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새로운 인구 유입요인이 약한 상태에서 기존 농촌주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유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제3인자와 제5인자, 그리고 제4인자로서 각각 주택시가화 진행지역, 제조업 집적지, 비고령화농업지역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유형에 속한 읍·면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 북부지역에 분포하며, 천안시와 아산시 간의 연담도시축상(국도21호선 주변 일대)에 있는 아산시의 배방읍, 탕정면, 신창면 등과 서해안고속국도가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당진군의 송악읍,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산시의 지곡면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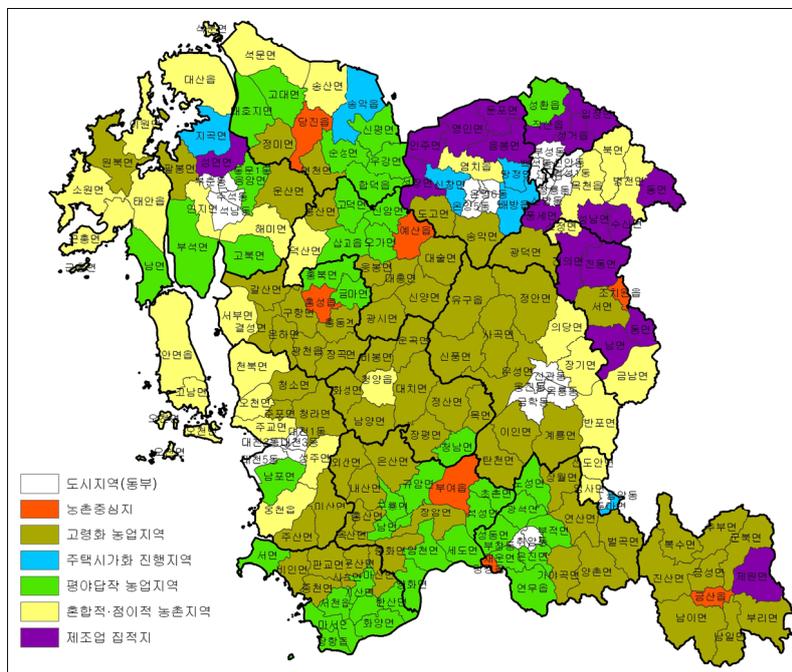
제4유형에 큰 영향을 미친 인자는 제2인자로서 평야답작농업지대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유형에는 금강유역의 논산시 7개 읍·면, 부여군 8개 면, 청양군 청남면, 서천군 7개 읍·면과 삼교평야의 홍성군 2개 면, 예산군 4개 읍·면, 당진군 4개 읍·면이 포함된다. 그리고 서산시의 부석면과 고북면, 당진군의 대호지면과 보령시의 남포면 등과 같은 간척지역과 태안군 남면, 서천군 서면 등 임해지역에 입지한 면지역들이 포함된다.

〈표 3〉 농촌지역유형별 평균 인자특점

구 분	제1유형 (농촌중심지)	제2유형 (고령화농업지역)	제3유형 (주택시가화진행)	제4유형 (평야답작농업지역)	제5유형 (혼합적·점적농촌)	제6유형 (제조업집적지)
제1인자 (도시적 특성)	3.833	-0.232	-0.175	-0.111	-0.356	0.298
제2인자 (평야답작특성)	-0.097	-0.583	0.257	1.196	-0.30	-0.069
제3인자 (도시화진행특성)	0.331	-0.045	4.232	-0.166	-0.275	-0.523
제4인자 (고령농촌특성)	-0.044	0.645	-0.654	0.118	-1.367	-0.198
제5인자 (산업화진행특성)	-0.992	-0.168	0.884	-0.255	-0.507	2.166
읍·면수 (100.0)	7 (4.1)	68 (39.8)	6 (3.5)	42 (24.6)	30 (17.5)	18 (10.5)

제5유형에 큰 영향을 미친 인자는 제4인자와 제5인자로서 각각 비고령화농업지역 즉, 젊은 연령층이 많지만 제조업 기능은 약한 지역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유형에 포함된 읍·면지역에는 태안읍, 청양읍, 안면읍, 웅천읍, 대산읍 등의 읍지역과 연기군에 연접한 공주시 및 계룡시의 읍·면지역, 그리고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태안군의 임해지역 읍·면들이 포함된다. 이 외에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도시지역(洞部)과 제조업집적지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인 읍·면지역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유형에 포함된 읍·면지역은 다양한 성격이 혼재되어 있거나 점이지대적 성격의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유형에 큰 영향을 미친 인자는 제3인자와 제5인자로서 시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제조업 집적도가 매우 높은 지역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유형에는 천안시의 3개 읍·면과 아산시의 5개 읍·면 등 수도권 연접지역과 천안시의 3개 읍·면, 연기군의 4개 읍·면 등 경부고속국도 및 천안-논산간고속국도의 연접부 또는 IC 입지지역, 그리고 금산군의 제원면과 같은 대전-통영간 고속국도의 IC 입지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 농촌지역에서의 제조업 입지 증가는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 또는 고속국도 등 간선교통망으로의 접근성이 유리한 곳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군집분석에 의한 충청남도 읍·면지역의 유형 구분도(2010년)

4.2. 농촌지역 유형 간 특징 비교

다음은 농촌지역이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 또는 발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몇 가지 주요한 지표를 통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분류된 6개 농촌지역 유형은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이 가능한 바, 고령화농업지역(제2유형), 평야답작(제4유형), 혼합적·점이적 농촌지역(제5유형) 등과 같이 기존의 농업을 근간으로 유지 또는 변화해가는 유형과, 주택시가화진행지역(제3유형), 제조업집적지(제6유형), 농촌중심지(제1유형)와 같이 도시화 또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주요 지표를 <표 4>에서 비교하였다.

우선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형들 즉, 농촌중심지(제1유형), 주택시가화진행지역(제3유형), 제조업집적지(제6유형) 간의 주요한 지표의 차이를 보면, 농촌중심지(제1유형)의 경우 충남 전체 읍·면 평균 인구밀도의 7배 수준으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도 소매업체수, 숙박및음식업체수, 제조업체수는 각각 평균의 8배, 5.7배, 3배 수준으로 6개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시적 토지이용률도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농가구율은 13.9%로 주택시가화진행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노령화지수 또한 주택시가화진행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촌중심지 유형은 농촌지역 내의 도심지와 같은 양상을 보이며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택시가화진행지역(제3유형)의 경우 가장 특징적인 지표로는 인구가 연 11.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농촌중심지를 제외한 여타의 유형에서 모두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규주택비율이 50.6%에 달하여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두번째로 신규주택비율이 높은 유형인 농촌중심지가 15.8%인데 비하면 주택시가화진행지역에서의 신규주택 증가가 다른 지역유형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주택시가화진행지역의 노령화지수는 충남 전체 읍·면 평균의 0.14 수준이며, 노령인구비율이 8.9%로 가장 낮게 나타나서 젊은층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주택비율은 10% 정도로 다른 유형이 대체로 30% 내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아울러 주택시가화진행지역의 제조업종사자 비율은 56.7%로 제조업집적지 다음으로 높은 반면에 농가구율은 12.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주택시가화진행지역은 젊은층의 증가와 신규주택의 증가 및 제조업종사자 비율의 증가 등이 이루어지면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제조업집적지(제6유형)의 경우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서 인구는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데 반하여, 인구천명당종사자수는 여타 지역유형의 3배 내외로 많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어서 인구 3명 중 2명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표 4〉 농촌지역 유형간 주요지표 비교(2010)

지 표	단위	농업근간 유형			도시화·산업화 진행 유형			전체 평균
		고령화 농업지역 (제2유형)	평야 답작농업 (제4유형)	혼합적·점 이적 농촌 (제5유형)	주택 시가화진행 (제3유형)	제조업 집적지 (제6유형)	농촌 중심지 (제1유형)	
읍·면수	개	68	42	30	6	18	7	171
인구밀도	인/km ²	67.48	151.23	158.09	678.21	187.89	1379.48	191.76
인구증감률	%	-1.66	-2.01	-1.39	11.72	-3.06	1.96	-1.23
제조업체수	개	30.4	41.8	38.3	78.3	137.7	163	53
도소매업체수	개	45.5	93.9	128.3	150.5	80.7	944.9	116.1
숙박및음식점업체수	개	40.8	71.3	167.2	210.5	86	574.7	103
도시적토지이용률	%	2.74	4.56	3.91	7.53	7.84	13.66	4.54
농업적토지이용률	%	25.29	49.9	28.15	36.25	35.99	32.41	33.64
임야율	%	62.49	28.29	55.41	43.81	43.06	36.27	49.08
경지정리율	%	42.25	65.4	46.89	48.75	46.74	42.89	49.48
경지율	%	19.52	39.33	17.82	28.57	23.91	59.54	26.51
농가구당경지면적	ha	1.33	1.77	1.28	1.51	1.39	1.02	1.43
신규주택비율	%	7.35	6.63	6.95	50.68	6.23	15.78	8.85
노후주택비율	%	37.95	37.01	30.15	10.01	32.34	26.69	34.32
전업농가구율	%	63.25	60.87	40.48	46.49	53.05	44.51	56.24
노령인구비율	%	37.23	32.53	22.61	8.88	24.72	14.03	30.25
노령화지수		467.47	375.29	223.26	50.59	268.29	83.03	350.65
농가구율	%	54.79	45.98	32.45	12.14	37.55	13.9	43.72
제조업종사자비율	%	32.24	31.37	18.83	56.68	71.23	6.12	33.56
천명당종사자수	인	248.5	241.9	315	382.8	903.4	341	336
공장용지면적	ha	21.55	27.5	66.54	150.79	160.36	13.62	49.73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구율은 37.5%로 나타나서 제조업종사자비율이 18.8%에 지나지 않는 혼합적·점이적 농촌유형보다도 농가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조업집적지유형의 제조업체수는 농촌중심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도소매업체수와 숙박및음식업체수는 오히려 충남 전체 읍·면 평균보다도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령화지수나 노후주택비율 또한 혼합적·점이적농촌유형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읍·면 내의 일부 공간에서 산업단지 등의 형태로 산업집적지를 형성해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 주변의 농촌에서는 일반농촌과 유사

하게 노령화 되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농촌유형들 즉, 고령화농업지역(제2유형), 평야답작(제4유형), 혼합적·점이적농촌지역(제5유형) 간의 차이를 보면, 고령화농업지역의 경우 특징적인 지표로는 인구밀도가 충남 전체 읍·면 평균의 0.4 수준으로 최하위인 반면에, 노령인구비율 및 노령화지수는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임야율과 농가구율이 각각 62.5%, 54.8%로 가장 높고, 전업농비율 또한 6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도시적 토지이용률은 물론 농업적 토지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고령화농업지역은 지형적으로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노령화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평야답작농업 유형(제4유형)의 경우는 고령화농업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임야율이 28.3%로 가장 낮은 반면에, 경지정리율이 가장 높고, 경지율은 농촌중심지 다음으로 높으며, 농가구당 경지면적이 1.77ha로 가장 넓고, 농업적 토지이용률이 가장 높다. 이 지역의 전업농가구율, 노령화지수, 노령인구비율, 노후주택비율은 고령화농업지역 다음으로 높고, 인구밀도와 인구는 고령화농업지역 다음으로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경지기반정비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혼합적·점이적농촌지역(제5유형)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평야답작농업지역 보다는 약간 높고, 인구 자체는 농업 근간의 다른 농촌유형(고령화농업지역, 평야답작농업지역)보다 덜 감소하는 추세이다. 임야율은 고령화농업지역이 가장 높고 혼합적·점이적농촌지역이 그 다음 순이며, 혼합적·점이적농촌지역의 농업적 토지이용율은 고령화농업지역 다음으로 낮다. 혼합적·점이적농촌지역의 농가구율은 고령화농업지역이나 평야답작농업지역 유형 다음 수준이나, 전업농가구율은 주택시가화진행지역이나 농촌중심지 보다 낮은 동시에 제조업종사자율도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소매업체수와 숙박및음식업체수는 제조업집적지보다 높으나 주택시가화진행지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혼합적·점이적농촌지역은 농업적인 근간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일정부분 산업화의 여파가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고, 그중 일부 읍·면의 경우는 점차 다른 지역유형으로 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3. 농촌지역 유형별 주요지표의 변화

앞에서는 2010년을 기준으로 농촌지역유형간의 특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런데 이리

한 지역유형간 특성의 차이는 시차를 두고 점차 진행된 결과가 누적된 것으로서, 농촌지역 유형별로 지난 기간 동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하여 <표 5>에서 농촌지역유형별로 주요한 지표들 중심으로 지난 15년간(1995~2010)의 변화를 살펴본다.⁴⁾

가장 특징적인 점은 지난 15년 동안에 도시화 또는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유형 모두 인구밀도가 증가한데 반하여, 농업을 근간으로 유지하고 있는 고령화농업지역과 평야답작에서는 인구밀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시가화진행지역은 지난 15년간 인구밀도가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에, 고령화농업지역에서는 인구밀도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인구증감률을 보면 1995년에는 지역유형 간 인구증감률에 큰 차이가 있지 않았던데 반하여, 2010년에는 인구증감률이 지역유형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시가화진행지역의 경우는 매우 높게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제조업집적지는 과거보다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⁵⁾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지난 15년 간 농가구율이 모든 지역유형에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시가화진행지역의 경우는 1995년에 농가구율이 44%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12.1%로 31.9% 감소하였고, 제조업집적지 또한 55.2%에서 37.5%로 17.7%가 감소하였다. 이에 반하여 전업농가구율은 1995년과 2010년 현재 혼합적·점이적농촌지역에서 6% 정도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유형에서 약간의 감소 또는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숙박및음식업체수가 지난 15년간에 모든 지역유형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주택시가화진행지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혼합적·점이적농촌지역과 제조업집적지에서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농촌지역의 산업화뿐만 아니라 2000년대부터의 전국적인 농촌체험·휴양·관광사업의 증가추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2010년의 제조업체수는 제조업집적지에서 1995년에 비하여 2.8배 증가하였고, 주택시가화진행지역에서는 2.1배 증가하였으며,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유형들에서는 1.1배 내외로 증가한 반면에, 농촌중심지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체수의 경우는 지난 15년 간 주택시가화진행지역에서 1.6배로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에, 고령화농업지역, 평야답작, 농촌중심지에서는 오히려 20% 정도 감소하였다.

도시적 토지이용률 지표는 농촌중심지가 1995년과 2010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난 15년간의 변화를 보면 모든 유형에서 도시적 토지이용률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시가화진행지역과 제조업집적지, 농촌중심지에서 4% 정도씩 증가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업적 토지이용률 지표는 지난 15년간 대부분의 지역유형에서 1~4%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5〉 2010년 유형구분에 따른 농촌지역유형별 주요지표의 변화(1995~2010)

지 표	단위	년도	농업근간 유형			도시화·산업화 진행 유형			전체 평균
			고령화 농업지역 (제2유형)	평야 답작농업 (제4유형)	혼합적· 점이적 농촌 (제5유형)	주택 시가화진행 (제3유형)	제조업집 적지 (제6유형)	농촌 중심지 (제1유형)	
읍·면수	개		68	42	30	6	18	7	171
인구밀도	인/ km ²	1995	100.96	200.36	138.46	233.53	177.29	1280.51	193.57
		2010	67.48	151.23	158.1	678.21	187.9	1379.48	191.76
인구증감률	%	1995	-0.06	-0.05	-0.04	0.01	-0.02	-0.02	-0.04
		2010	-1.66	-2.01	-1.39	11.72	-3.06	1.96	-1.23
제조업체수	개	1995	28.5	35	34.75	38	49.72	213	41.39
		2010	30.4	41.8	38.3	78.3	137.7	163	53
도소매업체수	개	1995	58.15	106.43	122.04	93	73.06	1106.57	126.98
		2010	45.5	93.9	128.3	150.5	80.7	944.9	116.1
숙박및음식업체수	개	1995	33.29	57.81	99.64	91.5	51.67	524.14	74.73
		2010	40.8	71.3	167.2	210.5	86	574.7	103
농가구울	%	1995	68.71	62.88	52.56	43.98	55.18	16.41	60.1
		2010	54.79	45.98	32.45	12.14	37.55	13.9	43.72
전업농가구울	%	1995	61.4	60.95	46.64	48.87	51.05	41.32	56.46
		2010	63.25	60.87	40.48	46.49	53.05	44.51	56.24
경지율	%	1995	26.05	49.62	28.65	38.14	36.42	34.94	34.24
		2010	19.52	39.33	17.82	28.57	23.91	59.54	26.51
임야율	%	1995	63.44	29.88	57.57	47.38	45.85	38.3	50.64
		2010	62.49	28.29	55.41	43.81	43.06	36.27	49.08
농업적 토지이용률	%	1995	26.4	50	29.18	38.75	38.6	36.75	34.89
		2010	25.29	49.9	28.15	36.25	35.99	32.41	33.64
도시적 토지이용률	%	1995	2.05	3.47	2.38	3.22	3.76	9.19	2.98
		2010	2.74	4.56	3.91	7.53	7.84	13.66	4.54

여기서 평야답작농업지역 유형과 주택시가화진행지역 유형 간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1995년에는 인구밀도, 제조업체수, 도소매업체수, 도시적토지이용율 등의 지표에서 두 지역 유형 간에 대동소이하였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2010년 현재 주택시가화진행지역에서는 인구밀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반면에, 평야답작 유형은 고령화농촌지역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제조업체수, 도소매업체수, 숙박및음식업체수, 도시적토지이용률 모두 주택시가화진행지역에서는 크게 증가한데 반하여, 평야답작 유형에서는 약간 증가하거나

도소매업체수의 경우는 감소하였다. 즉 지난 15년 동안에 주택시가화진행지역은 점차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서의 특징이 도시적으로 변모하여 가는 반면에, 평야답작 유형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농촌을 유지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평야답작 유형과 제조업집적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점차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화의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시점에서 각각 유형구분을 통하여 시점들 간에 각 유형에 속하는 읍·면들의 분포와 그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5. 결 론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171개 읍·면을 대상으로 21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농촌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는 지역유형을 구분하여 그 특징을 해석하였다.

먼저, 인자분석에 의한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구성적인 특성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주로 읍급도시와 충남 북부 면지역의 성향을 나타내는 ‘도시적 농촌특성’과, 금강유역과 내포평야 중심으로 나타나는 ‘평야답작 농촌특성’, 아산시와 당진군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르는 ‘도시화진행 농촌특성’,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농촌 특성을 나타내는 ‘고령화전업 농촌특성’, 천안시와 아산시의 수도권 연접지역과 연기군 및 금산군의 고속국도 연접지역에서 나타나는 ‘산업화진행 농촌특성’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각 인자특점을 사용한 군집분석에서 충청남도 농촌지역은 6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1유형에는 농촌중심지 유형을 보이는 금산읍, 조치원읍, 당진읍, 예산읍, 홍성읍, 강경읍 등 7개의 읍지역이 포함되며, 시청소재지(洞部)들과 더불어 해당 시·군의 수위중심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제2유형에는 고령화농업지역과 비평야지대의 특징을 나타내며, 차령산맥 일대 몇 여타의 구릉성 산지지역에 위치한 읍·면지역이 주로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지형적 불리성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업기반 정비, 그리고 도시와의 접근성이 대체로 불리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제3유형에 신규주택의 증가, 제조업의 집중, 비고령화농업지역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며,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제4유형은 평야답작지대의 특징을 나타내며, 금강유역과 삼교평야, 그리고 연안에 입지한 읍·면이 포함된다. 제5유형은 젊은 연령층이 많지만 제조업 기능은 약하고 특정 기능이 두드러지지 않아, 다양한 성격이 혼재되어 있거나 점이지대적 성격이 강한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유형은 제조업 집적도가 매우 높은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며, 주로 천

안시와 아산시의 수도권 연접부와 고속국도의 연접부 또는 IC 입지 지역으로서 수도권과의 근접성 및 고속국도를 통한 교통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들이다.

한편 농촌지역유형별로 지난 15년간(1995~2010)의 주요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유형과 농업을 근간으로 유지하고 있는 고령화농업지역과 평야답작농업지역 간 변화의 양상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1995년에는 평야답작농업지역 유형과 주택시가화진행지역 유형 간 도시화 및 산업화진행 특성이 대동소이하였으나, 지난 15년 동안에 주택시가화진행지역은 빠르게 도시적 성향으로 변모하여 가는데 반하여 평야답작농업 유형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농촌지역 특성을 유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혼합적·점이적 농촌지역은 농업적인 근간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제법 산업화의 여파가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가장 큰 변화와 분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이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점차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분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개 시점 이상의 유형구분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농촌지역의 다양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지역 자체의 위치, 지형·지리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농업 및 산업적 특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남도의 북부지역 특히, 천안시·아산시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도시적 성격으로의 변화의 폭이 큰 것은 대도시권과의 근접성과 교통 접근성 및 이에 따른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작용·연계구조의 변화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⁶⁾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농촌지역의 분화 현상을 보다 설득력 있게 분석·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개 시점 이상의 분석에 의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나, 이 연구에서는 한 시점에서만 분석함으로써 일정 지역의 변화 현상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셋째, 농촌의 내부적인 변화 현상을 고찰할 수 있는 내생적 발전 관련 지표들을 통해 유형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향후 이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사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실험적인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분석방법의 한계로서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개념에 의한 농촌지역의 유형구분을 실시하였으나,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 개념에 의한 농촌지역 내부 또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연계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농촌지역 유형구분 결과의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간 단위별로 사용 가능한 통계자료가 다양화되어야 하고, 속성자료를 지리정보체계와 긴밀히 연결시킴으로써 미시적 지역에 대한 연구자의 접근이 용이해져야 한다. 특히, 통계청이 운용하고 있는 ‘집

계구' 수준에서 더욱 다양한 속성정보의 결합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유형구분 연구를 진행하여 일정 지역의 특성 변화내용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 유형구분과 연계하여 정주체계·연계관계 등에 의한 지역구조의 파악과 특정지표에 의한 등급화 등도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볼 필요성이 크다.

주

- 1) 당진시와 세종시의 행정구역 편제가 본 연구의 분석자료 기준연도인 2010년 당시 당진군과 연기군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기점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의 편의를 위해 당진군과 연기군으로 지칭하여 설명하였다.
- 2) CCC(Cubic Clustering Criterion), Semi Partial R^2 , F통계량 등을 참고한다(김미영, 2007, p.82)
- 3) 유형별 평균 인자점수를 가지고 유형의 특징을 판정하는 경우, 그 유형에 속한 읍·면들을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진 지역으로 간주하기 쉽다는 점이 우려되지만 유형 간 인자점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을 통하여 유의성이 인정된다면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은 공통인자에 의해 유형의 특징을 의미 있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학, 1995, p.137).
- 4) 1995년을 비교 기준연도로 정한 것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도농통합시)가 설치된 해로서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포착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5) 대부분의 제조업집적지들은 철강, 석유화학 등 중후장대형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고용인구 규모가 작은 편이고, 해당 읍·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크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6) 이런 점에서 볼 때 OECD가 농촌지역을 경제적으로 통합된 농촌지역(economically integrated rural area), 중간 농촌지역(intermediate rural area), 원격 농촌지역(remote rural area)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OECD, 1993, pp.32-40).

참 고 문 헌

- 강혜정., 2006. “다변량 분석방법을 이용한 농가 유형 구분,” 『농촌경제』, 제29권 제5호, pp.29-43.
- 김미영. 2007. “농촌지역의 유형구분,” 『농촌과 환경』, 통권97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pp.73-88.
- 성주인 · 송미령. 2003. “지역유형 구분과 농촌지역의 유형별 특성,” 『농촌경제』, 제26권 제2호, pp.1-22.
- 송두범 · 오남현. 2001. “농촌지역사회의 유형구분 및 특성분석-충청남도 읍·면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3권 제3호, pp.107-120.
- 신영철 외. 1992. “면단위 농촌지역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진주농전대논문집』, 제31호, pp.79-88.
- 신호철 외. 1992. 『농촌마을 및 주택에 관한 연구』,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 엄수원. 1997. “한국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공간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성수 · 주호길. 2005. “다변량분석법을 이용한 충청북도 읍·면단위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유형구분 분석,” 『농촌계획』, 제11권 제2호, pp.35-41.

- 이상학. 1995. 12. “마을 단위 농촌지역의 유형구분,” 『농업경제연구』, 제36호, pp.129-143.
- 이원호·안영진. 2011. “지역 맞춤형 낙후지역 정책을 위한 지역 유형구분 및 특성 분석: 성장촉진지역 정책의 사례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pp.96-108.
- 이정환. 1987. “한국농촌지역의 유형구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환 외. 1990. 『농촌생활환경정비와 면단위 정주권 개발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석희. 2005. “농촌지역의 유형화와 특성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pp.211-232.
- 장우환·최규섭. 1989. 12. “산촌지역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 제12권 제4호, pp.121-135.
- 정안성. 1988. 12. “다변량분석법에 의한 지역농업의 유형화-전북 농촌지역에의 적용-,” 『농업경제연구』, 제29호, pp.25-42.
- 최양부 외. 1985. 『정주생활권 설정 및 유형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EFRA. 2004. *Rural Futures Project: Scenario building for twenty year and fifty year futures*.
- OECD. 1993. *What Future for Our countryside? : A Rural Development Policy, Paris, Head of Publications Service*.

(논문접수일: 2013.09.29 / 논문수정일(1차: 2013.12.09) / 게재확정일: 2013.12.31)

-
- ※ **김정연(金正淵)**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중소도시재생, 농촌정주체계 및 농촌중심지, 지역개발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기초생활권 중심지 정비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2013)” 등이 있다(이메일주소: jykim@cdi.re.kr).
- ※ **김은순(金殷淳)**은 서울대학교 농가정학과와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네소타대학교에서 응용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농업 및 환경정책, 소비경제 관련 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Asymmetry in Advertising-Demand Response: An Application to Korean Pork”(2012) 등이 있다(이메일주소: ugim@cnu.ac.kr).
- ※ **오명택(吳明澤)**은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와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역계획, 공간분석을 통한 현상검증 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6대 광역시 부도심 지역의 성장추이 분석과 계획대응방안 연구(2011)” 등이 있다(이메일주소: tohin@cdi.re.kr).